

보도자료

보도일시 2017년 10월 27일(금) 석간부터 가능

담 당 자 김유빈 한국노동연구원 패널리티데이터연구실장
(044-287-6304, ykim@kli.re.kr)
안준철 한국노동연구원 홍보전략팀
(044-287-6022, jcahn@kli.re.kr)

배포일시 2017년 10월 25일(수) 15:00

「2017년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개최

한국노동연구원(원장직무대행 김승택)은 2017년 10월 27일(금)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컨벤션센터에서 '2017년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본 학술대회에서는 '한국 청년의 삶'이란 주제로 기획세션을 마련하였으며, 일반부문 24편의 논문과 대학원생경진대회 우수논문 수상작 4편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한국노동연구원은 그 중 대표적인 논문에 대한 보도자료를 배포합니다. 구체적인 일정은 첨부한 초청장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도자료 발표논문 제목

- 켄거루족 실태분석과 과제
- 청년세대 이행기 삶의 자신감 수준과 영향요인
- 청년 생생지락을 위한 취업 및 고용대책, 주관적 인식에 대한 대학유형별 분석

갱거루족 실태분석과 과제

오호영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본 연구에서는 한국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패널(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 이하 KLIPS)」 19차년도 학술대회용 자료의 가구조사, 개인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20~34세 이하 성인 청년층을 대상으로 갱거루족의 현황을 분석했다.
- 갱거루족은 성인이 된 자녀가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하고, 부모에게 여전히 의존하면서 주거와 용돈 등 경제적·정서적으로 의존하는 집단으로, 청년취업난이 심각한 요즘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 분석결과 남자가 여자에 비해 갱거루족 비율이 다소 높고, 부모가 고소득층일수록 자녀의 교육훈련에 보다 오랜 기간 투자하기 때문에 20대 초반에는 교육훈련생이 많지만, 30대로 넘어가면서 갱거루족 비율이 매우 제한적이다.
- 갱거루족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다른 요인 통제 후, 경제활력지수가 11.8% 낮고, 한국사회에 대한 인식지수 역시 약 9%정도 낮다. 사회적 지지지수는 갱거루족 여부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 청년층 자립을 촉진할 필요성 제기
- 청년층 갱거루족은 경제활력이 낮고 한국사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다는 점에서 청년층에 대한 취업기회 확대를 통해 청년층의 자립을 촉진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청년세대 이행기 삶의 자신감 수준과 영향요인

김지경(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본 연구는 다중격차의 한국사회에서 성인기로 이행하는 삶에 대한 청년세대의 자신감 수준을 분석하였음. 실증분석 결과, 세대 내 경제적 격차와 삶의 질적 격차가 미래 삶에 대한 심리적 격차로 확대되었음이 확인되었으며, 높은 가구소득은 자신감을 높이는 요인이 되기는 하나 절대적 영향 요인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사회적지지 수준이 높을 때 가구소득의 영향력은 감소되는 조절효과가 있음을 발견함.

○ 분석 자료 및 대상

- 한국노동패널 제19차(2016) 가구, 개인, 청년층부가조사 병합 생성자료
- 만15세~34세 청년층 부가조사 응답자(3,225명) 중 조사시점 기준 중·고등학교 재학생을 제외한 2,563명을 대상으로 분석

○ 분석 변수의 구성 및 측정

- 이행기 삶의 자신감 항목: ① 인간관계(‘친구 동료 등 주변사람들과의 인간관계’), ② 연애 및 결혼(‘원하는 연애 및 결혼하는 것’), ③ 일자리(‘원하는 일자리를 갖는 것’), ④ 내 집 마련(‘내 집 마련 등 원하는 주거에서 사는 것’), ⑤ 출산 및 양육(‘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에 대해 5점 척도(1.매우 자신 없다 ~ 5.매우 자신 있다)로 측정, ① ~ ⑤ 항목 총합의 평균값을 ‘총자신감’으로, 각 항목의 측정값을 항목 자신감으로 분석
- 청년 특성 변수: ① 사회·인구학적 특성(성별, 연령, 교육수준, 혼인상태), ② 취업 특성(취업여부, 취업형태, 정규직여부), ③ 경제적 여건 특성(가구소득, 경제적 독립 여부), ④ 심리·정서 특성(사회적지지, 자존감)

□ 청년특성에 따른 이행기 삶의 자신감 비교 분석의 주요 결과

○ 이행기 삶에 대한 청년세대의 자신감 수준의 평균은 보통수준을 다소 상회(3.32점)하는 수준이며, 다섯 가지 항목 중 인간관계(3.63점)에 대한 자신감의 수준이 가장 높고, 내 집 마련과 출산 및 양육(3.19점)이 가장 낮음.

■ 분석 결과: 5점 척도 측정한 총자신감 평균 3.32점으로 보통수준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며, 항목별로는 인간관계(3.63점) → 연애 및 결혼(3.39점) → 일자리(3.26점) → 내 집 마련(3.19점)과 출산 및 육아(3.19점)의 순으로 나타남.

■ 시사점: 청년세대가 앞으로의 삶을 계획하는데 있어 가장 어려운 난제로 다가오는 것이 주거와 자녀 출산이며, 생활의 안정적인 주거 없이 자녀 출산과 육아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함.

■ 정책 제언: ‘청년정책=일자리정책’이라는 틀(frame)로 일자리 문제와 주거문제를 분절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생애주기를 바탕으로 20대 초·중반 노동시장 진출시기에는 일자리정책에 무게중심을 두고, 20대 후반 및 30대 초반의 청년들에게는 주거정책에 무게를 실는 등의 방식으로 생애주기의 흐름에서 주요정책의 구성 비율을 조정하는 포괄적 청년 정책 설계의 필요성이 제기됨.

○ 청년특성에 따른 세대 내 이행기 삶의 자신감 수준의 차이가 상당하며, 특히 교육수준, 가구소득, 사회적 지지와 자존감에 따른 격차가 큰 것으로 드러남.

■ 분석 결과: 성별을 제외한 모든 특성에 따라 총자신감 수준의 차이가 상당하며,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임.

- 교육수준별: 고졸이하(3.11점), 전문대 재학(3.36점), 전문대 졸업(3.27점), 4년제 대학 재학(3.43점), 4년제 대학 졸업(3.36점), 석사 재학 이상(3.56점)
- 취업여부별: 취업자(3.41점), 미취업자(3.23점)
- 정규직여부별: 정규직(3.50점), 비정규직(3.23점)

- 연평균 가구소득 수준별: 3천만원 미만(3.13점), 3천만원~4천만원 미만(3.28점), 4천만원~5천만원 미만(3.39점), 5천만원~7천만원 미만(3.38점), 7천만원 이상(3.44점)
- 사회적지지 수준별: 보통미만(2.76점), 보통(3.08점), 보통이상(3.44점)
- 자존감 수준별: 보통미만(2.67점), 보통(3.08점), 보통이상(3.39점)

- **시사점**: 양극화된 사회에서 가구소득과 같은 경제적 격차가 사회적 지지나 자존감과 같은 삶의 질적 격차를 낳고, 이어 앞으로의 삶에 대한 자신감과 같은 심리적 격차까지 연계되고 있다는 사실, 동시에 사회 다양한 영역에서의 격차가 구조화되고, 다시 각 영역의 불평등한 요소가 서로 작용하는 다중격차의 문제가 청년세대에 집약적이고 압축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확인함.
- **정책 제안**: 청년 세대 내 격차를 고려한 정책적 접근과 대응으로 청년 대상 지원 정책의 실효성 강화의 첫걸음이 될 수 있음.

□ 이행기 삶의 자신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주요 분석 결과

- 실증분석 결과를 종합해보면, 상대적으로 높은 연령과 미혼상태는 자신감을 낮추는 공통적인 요인이고, 높은 교육수준과 취업상태, 정규직은 자신감을 높이는 요인임.

- **분석 결과**: 정(+) 영향, 부(-)의 영향, 통계적 유의성 없음()

	총자신감	인간관계	연애및결혼	일자리	내 집 마련	출산및양육
연령	-	-	-	-	-	-
미혼	-	-	-	-	-	-
취업자	+	+	+	+	+	
임금근로자	-	-	-	-	-	
정규직	+		+	+	+	+

- **시사점**: 청년층 고용율(43.4%)이 낮고, 취업자 10명 중 3~4명, 특히 고졸자의 4~5명이 비정규직, 비정규직의 임금수준이 정규직의 61.3%라는 사실에 비추어본다면, 상당수의 청년들이 삶의 자신감을 높이는 요인을 갖지 못하고 배제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¹⁾

- 정책 제언: 현재 추진되고 있는 비정규직화 되어있는 청년들의 일자리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정책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상대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놓이는 고졸 청년들의 삶에 대한 지원 강화가 요구됨.

○ 높은 가구소득은 인간관계와 내 집 마련에, 사회적지지는 인간관계, 일자리, 내 집 마련에, 자존감은 인간관계와 일자리에 대한 자신감을 높이는 주요 요인임. 또한 사회적지지는 가구소득의 영향력을, 자존감은 경제적 독립의 영향을 감소시키는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짐.

- 분석결과: 정(+) 영향, 부(-)의 영향, 통계적 유의성 없음()

	총자신감	인간관계	일자리	내 집 마련
가구소득	+	+		+
사회적지지	+	+	+	+
자존감	+	+	+	
가구소득*사회적지지	-	-		-
경제적 독립*자존감	-	-		

- 시사점: 사회적지지가나 자존감과 같은 심리·정서특성은 가구소득과 같은 경제적 격차가 청년들의 삶의 자신감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기제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하며, 경제적 격차에 따른 청년세대의 다중격차의 고착화를 완화시키는데 필요한 정책적 개입 점을 시사함.
- 정책 제언: 청년세대 심리·정서측면의 사회적지지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정책 수단의 적극적 개발 및 활용 지원

1) 한국노동패널 19차 학술대회버전 이용,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정의는 노사정합의 기준에 따름.

청년 생생지락을 위한 취업 및 고용대책, 주관적 인식에 대한 대학유형별 분석

한정현(충북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 본 연구는 한국노동연구원 노동패널 청년층 부가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취업준비, 첫 일자리, 정부고용대책, 주관적 인식에 대한 연구로서 주요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취업준비 시작시기, 입사지원, 면접횟수, 희망일자리 규모, 희망 월 평균 급여에서 2~3년제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 유형 간 차이가 있다.
 - 전문대학유형의 경우 취업준비 시기는 졸업이후 47.8%, 재학중 47.4%로 나타났으며 입사지원은 평균 2.4회, 면접횟수는 1.9회로 나타났다. 4년제 대학유형의 경우 취업준비 시기는 졸업이후 39.3%, 재학중 55.1%로 나타났으며 입사지원은 평균 2.8회, 면접횟수는 2.1회로 나타났다.
 - 미취업자 취업의사에서 전문대학유형의 고용형태는 일자리규모가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순으로 나타났고, 희망수입은 월평균 228만원으로 나타났다. 4년제 대학유형의 경우, 일자리규모가 중견기업, 대기업, 국가기관 순으로 나타났고, 희망수입은 월평균 255만원으로 나타났다.
 - 이러한 결과는 전문대학유형의 경우 재학 중 취업준비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며, 미취업자 희망 일자리 수입 월평균은 4년제 대학유형 평균이 27만원 정도 더 많은 것으로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취업요구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 첫 번째 일자리 분석에서 졸업 이후 미취업자 비율, 평균 일자리수, 월평균 소득, 근무시간에서 대학유형별 차이가 나타났다.
 - 졸업 이후 미취업자는 4년제 대학유형이 20.5%로 전문대학유형 11.7%보다 8.8%정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달 이상 취업한 평균 일자리 수는

전문대학 유형이 1.96개로 4년제 대학유형 1.58개 보다 많았다.

- 일주일 근무시간은 전문대학유형 평균 42.9시간 근무, 4년제 대학유형 40.8시간 근무로 2시간 정도 차이를 보였다.

□ 청년고용정책 분석은 대학유형별 관심도, 인지도, 거주지역별, 참여도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 고용정책에 대한 관심도, 인지도, 취업도움 정도의 취업정보제공요인 모두 4년제 대학유형이 전문대학유형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거주지역별 청년고용정책에 대한 관심도는 경남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서울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 취업지원제도 측면에서 고용정책에 대해 들어본 경험은 고용센터 > 취업정보제공 > 취업지원관제도 순으로 나타났다.
- 청년층 취업난 주요원인 분석결과 1순위는 양질의 일자리 부족으로 나타났다. 청년층 고용문제 해결방안 분석결과 1순위는 중소기업의 일자리 질 개선, 2순위 대기업 일자리 창출 유도, 3순위 직업교육의 강화 순으로 나타났다.
- 이 결과는 청년층 취업난에 대한 해결방안은 양질의 일자리 부족에 대한 해소와 중소기업의 일자리 질 개선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청년활력지수와 자존감에서 4년제 대학유형의 주관적 인식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취업만족도가 청년활력지수의 희망일자리에 미치는 영향력도 대학유형별로 차이가 나타났다.

- 청년활력지수, 자존감, 사회적 지지는 4년제 대학유형이 더 높게 나타났다.
- 청년활력지수의 하위요인 희망일자리에 영향을 미치는 취업만족도는 전문대학유형의 경우 요인별 직무만족도, 4년제 대학의 경우 조직몰입도가 우선순위로 나타났다.
- 청년활력에 영향을 미치는 설명력은 전문대학유형이 노력기대감 > 긍정적

관계 > 자기긍정 순으로 나타났으며, 4년제 대학유형이 노력기대감 > 긍정적관계 > 사회만족감 순으로 나타났다.

- 이 결과는 청년층의 인간관계, 연애 및 결혼, 정주여건, 자녀양육 등 전반적 활력지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노력을 하면 공정한 대가와 사회적 성취를 위한 기회가 있다는 기대를 높일 수 있는 사회적 인식과 주위 사람들과의 상호존중, 염려, 도움, 소통 등 긍정적 상호교류가 중요함을 보여준다.

❖ 첨부: 2017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초청장 1부. 끝.